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 호스피스 봉사자 영성 교육(피정)

9월 7일~8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전남 고흥 소록도 성당으로 피정을 다녀왔다. 자원봉사자 35명, 직원 6명이 동행하여 1박을 함께 하면서 다른 요일에 활동하는 봉사자들과도 어울리며 친목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피정지인 소록도의 역사를 통해 한센인의 고통과 치유의 신앙을 성찰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치유하는 시간은 물론 봉사자가 지녀야 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 하반기 사별가족모임

11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전 6개월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및 가정에서 임종한 사별가족을 초대하여 사별가족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모임에는 총 40명의 사별가족이 참석하였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 등 비슷한 아픔을 겪는 유형별로 착석함으로써 서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각 그룹별 '고인의 의미'에 대한 나눔과 '고인에게 편지쓰기'를 통하여 애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사별가족 모임은 2017년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직원 소진 완화 프로그램(등산)

11월 13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호스피스 직원과 봉사자 21명



이 서울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이번 산행은 직원과 봉사자가 상호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서로 화합하고 소진감을 해소하고자 진행되었다. 업무 현장을 벗어나서 간단한 산행을 통해 치유되는 기분을 가질 수 있어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음을 표현하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호스피스 팀원으로서 함께 하는 우리를 느낄 수 있었다.

##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 환우 방문

투병생활에 지쳐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주 1회 또는 수시



로 방문하여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노력한다.

### ▶ 사별 가족 모임 및 추모 미사

9월 29일, 11월 11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모시고 센터에서 사별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1일 위령성월을 맞아 환우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추모 미사를 봉헌하였다.

▶ 직원 및 자원봉사자 성지순례



10월 21일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갈매못 순교성지를 방문하여 순교자들의 숭고한

열과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 자원봉사자 CS 교육

7월 6일, 11월 23일 봉사자들의 많은 역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벗 역할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대화기법에 대한 교육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봉사자들의 역할 증진과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에도 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생신 파티

8월 10일, 9월 21일, 29일 유\*\*님, 이\*\*님, 홍\*\*님의 생신을 맞아 생신 파티를 진행하였다. 케이크와 과일 등을 준비하여 생일 노래와 함께 파티를 진행하였다. 기쁜 순간을 함께 사진으로 남겨 전달해드리고 준비된 음식을 모든 센터 가족들과 나누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 작은 음악회

8월 11일, 12월 5일 한여름의 작은 음악회와 성탄 맞이 작은 음악회가 진행되었



다. 뜨거운 반응으로 준비된 곡이 끝났음에도 앙코르를 외쳐주시는 환자와 가족들의 열기에 즉석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호스피스 병동 가득 음악에 심취하신 환자와 가족들로 기쁜 성탄을 미리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 청량리역 추석맞이 홍보활동

9월 13일 추석을 맞이하여 청량리역사에서 혈압과 혈당 검사, 리플렛 배포, 호스피스 상담을 시행하였다. 128명의 많은 귀성객이 참여해주셨다.

▶ 사별 가족 모임

9월 28일, 11월 30일 3차, 4차 사별 가족 모임이 진행되었다. 고인을 위한 추모 미



사와 마음나누기가 그리고 고인에게 못다 전한 말을 편지로 남겼다. 고인과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이별 후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위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야외나들이

10월 12일 오랜 투병생활로 외출이 어려웠던 환자와 가족들을 모시고 영취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높은 가을 하늘과 청명한 공기를 한껏 느끼며 환자와 가족들이 오랜만에 즐겁게 웃으셨던 날이었다. 나들이를 끝나치고 나들이에 함께 하지 못한 병동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나들이의 여운을 함께 하였다.

▶ 우수봉사자상 시상

10월 27일, 12월 8일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과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전체 자원봉사자의 날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민영기, 노혜숙, 심수복, 이연경, 임미선 총 5명의 봉사자가 1,000시간 이상의 공적사항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말기 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 따뜻한 나눔 성우회 자원봉사활동

11월 17일 봄에 이어 한 번 더 따뜻한 손길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불광동에 위치한 노



인 요양시설인 '성우회'에서 혈압과 혈당 검사, 아로마 발 마사지를 진행하였다. 봉사 활동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직원 및 봉사자들이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씬&again 소진 완화프로그램

9월 23일, 9월 30일 2회에 걸쳐 호스피스팀 내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션&again 소진 완



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환자와 보호자를 돌보면서 각자 힘들었던 기억들을 내려놓고 다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제성모병원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7월 6일~7월 8일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이 진행되었다. 원내 및 지역사회에 호



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널리 알리고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의가 제공되었다. 약 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48명이 수료하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행사 3권역 캠페인 참여



10월 14일 지역사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3권역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약 8개 병원이 참여하여 무대공연과 주제별 부스가 운영되어 리플렛 제공, 사진전, 작품 전시, 캘러그라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호스피스 관련 종사자 단합대회

7월 23일 본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완화



의료도우미 등 관련 종사자들 간의 친목 도모 및 소진예방을 위한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별 대항전 등을 펼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팀원들 간 서로 알아가고 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 위령의 날을 맞아 사별가족모임

11월 2일 '위령의 날'을 맞아 김현석 야곱 신부님께서 집전. 위령미사와 함께 가족들과



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총 8가족(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이 평안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사 봉헌하고 가족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 인천성모병원과 함께하는 4/4분기 다학제 간 집담회(국제성모병원 주최)



11월 17일 두 병원의 협력구축 및 질 향상을 위한 통합 case conference가 진행되었다. 통증 관리 및 돌발성 통증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발마사지 전문교육

12월 13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를 통한 발마사지 전문교육을 시행하였다. 한 자원봉사자는 전문교육을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어 더 기쁘고 보람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성모병원

▶ 통증캠페인

6월 2일 병원 로비에서 전 교직원 및 내원객 대상으로 통증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통증에 관련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컵 선물을 증정하고 부채도 나누어 드리며 통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 봉사자 피정 "Soul upgrade"

6월 21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33명 함께 인천 성안드레아 피정의 집에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이형원 가브리엘 신부님의 "Soul upgrade"라는 주제로 마음의 오아시스를 체험하



는 시간을 가졌다.

▶ 김이슬 세라피나 화가 작품 기증식

7월 1일 김이슬 세라피나 화가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본인의 작품을 기증하여 로사리오실에서 기증식을 했다.

▶ SBS 8시 뉴스 방영

7월 8일 SBS 8시 뉴스에 가정호스피스 환자인 김복단 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 집에서 맞고파'라는 기사로 방영되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호스피스를 통해 증상조절을 하며 이별을 준비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7월 10일 SBS 8시 뉴스에 가정호스피스 환자셨던 故 장신애 님의 가족이 '집에서 함께 한 마지막 한 달..선물 남길 이별'이란 기사로 취재되어 방영되었다. 故 장신애 님은 가정호스피스를 받으며 임종 준비를 잘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느님 품 안으로 가셨다.

▶ 연극 '밥' 공연 호스피스 후원회 협찬

7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후원하는 연극 '밥'을 인천 성모 호스피스후원회 협찬으로 흥대입구역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병원장 이학노 몬시뇰님을 모시고 후원회원 80여 명이 관람하였다.

▶ 봉사자 월례회의 특강 : 독서치료



7월 19일 호스피스 봉사자 월례회의에 심영 세라피나 독서치료를 모시고 독서치료에 관한 특강을 통해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 **환자와 가족 병동 식사 나눔**

7월 27일 호스피스 봉사자들 도움으로 병동 환자와 가족 위해 여름의 보양식 맛있는 삼계 죽을 대접해 드렸다.

▶ **사례발표회**

9월 2일~3일 사례발표회에 서민석 교수, 김테레사 사회복지사, 유애란 간호사 참석하였고, 쿠키클래스를 발표하였다.

▶ **사별가족모임**



9월 10일 제3분기 희망가족모임을 가졌다. 양정환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집전으로 추모 미사와 나눔 및 오카리나 공연이 있었고, 미술요법을 통해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얻는 시간이었다. 11월 19일 전체 희망가족모임을 가졌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별하신 가족 28분을 모시고 추모 미사와 미술요법, 풍선에 고인을 위한 편지쓰기, 음악공연과 정성껏 준비한 점심 대접으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는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홍보 캠페인**

10월 14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을 맞아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앞 광장에서 2016년 호스피스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을 3권역 타 기관 함께 진행하였다.

▶ **김대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10월 27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기념행사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장 김대균 교수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대건성모병원**

▶ **추억 만들기 - 도자기 요법**

8월 17일 환자와 가족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요법 시간을 가졌다.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등 문구와 그림을 그려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컵을 완성했다. 따끈하게 구워진 컵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서로 기쁨을 나눴다.

▶ **추석명절행사**



9월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환우와 가족들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전통음악을 듣고 추석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였다. 송편빚기 대회를 열어 하트 스티커를 많이 받은 환자와 가족에게 시상하였다. 또한, 직접 만든 송편을 나누어 먹으며 마술 공연을 관람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일반인 호스피스교육**

일반인들을 위한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7주간 21시간으로 구성되어 삶과 죽음의 의미, 암 성통증 관리, 임종환자 및 사별가족의 돌봄 등 호스피스 환우를 돌봄에 있어 꼭 필요한 주제들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9월 28일 본원 19명의 수료자, 10월 26일 가양동 성당 72명의 수료자, 11월 5일 가오동 성당 66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시간을 마련하였다. 37명의 가족과 완화의료센터 팀원들, 자원봉사자, 그 외 관계자들을 합하여 90여분이 함께 하였다. 추모미사와 뷔페식사, 공연



## 복산성모병원

### ▶ 20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행사

완화의료센터에 환자와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29점을 전시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돌봄을 홍보하고, 인식확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 8권역 완화의료주간 합동캠페인



10월 13일 경상대병원 주관으로 진주성에서 열렸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각 병원의 대표들이 모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멋진 캠페인이었다.

### ▶ 2016년 사별 가족 만남의 날

10월 25일 (10:30~15:30) 단기 사별 가족 모임과 달리 1년간의 사별 가족을 초대하여 위로와 추모의

등을 통해 잠시나마 우리 곁을 떠난 분과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 ▶ 입원환자와 가족을 위한 저녁식사

집 밥이 그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 2016년 제10차 완화의료 도우미 교육

9월 5일~9월 7일 100명이 3일 동안 본원 4층 베네딕도홀에서 교육을 받았다. 또 본원에서 30명이 실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심화 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심화 교육이 이루어졌다. 주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영적 돌봄”과 MBTI, 의미요법 등의 교육을 전영주(아가페) 수녀님의 지도로 격월로 실시하였다.

### ▶ 국립암센터 완화의료주간 행사 및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완화의료주간 자원봉사자의 날에 본원 김두순(루시아), 장쌍란(엘리사벳), 이두이(보나), 이정아(스텔라), 이해영(리디아) 님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수상했다.

## 천주의 성모한병원

### ▶▶ 자원봉사자 나들이

10월 18일 봉사자 33명과 직원 3명은 돌봄에 대한 소진 예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제암산 자연 휴양림”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봉사활동을 통해 겪는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나누며,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 제5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11월 15일~16일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제52기 호스피스교육이 시행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호스피스란 무엇인지, 말기 암 환자들의 경험, 신체적 증상에 따른 간호, 영적 돌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소진예방

11월 24일 말기 암 환자들의 생애 마지막을 함께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소진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사를 초빙하여 “웃음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팀원들은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웃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2016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개최  
9월 29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가톨릭에서의 호스피스 영적 돌봄의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준양 신부의 가톨릭교회에서 영적 돌봄의 근거(성서와 교회 문헌), 용진선 수녀의 호스피스 팀원의 영성과 영성 강화 훈련 강의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호스피스팀의 영적 돌봄의 실재를 분야별로 발표하였다.

호스피스 관계자 117명이 참석하여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필수적이지만 어렵게만 생각되는 영적 돌봄에 대해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사)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 제3회, 4회 이사회 개최

7월 18일, 9월 29일 서울성모병원 별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3회 이사회에서 세미나 주제(가톨릭에서의 호스피스 영적 돌봄의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였고, 4회 이사회에서는 세미나 평가와 자원봉사자의 날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